



제목	에스라서 1-6장의 아람어 서신들의 특징과 역할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48)
발행일	2010. 3. 15.
저자	김래용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7-40
ISBN 또는 ISSN	1227-4879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에스라서 1-6장에 나타나는 네 개의 아람어 서신들(4:8-16; 4:17-22; 5:7-17; 6:6-12)의 내용과 구조를 연구하여 그것들의 특징을 찾음과 동시에 에스라서 1-6장 안에서 그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히고 있다. 저자는 네 개의 서신들이 오리지널 아람어 서신들에 기초하여 재구성된 것들이며, 성전 건축의 극적 효과를 위해 1-6장 안에 조직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적대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적극적인 찬성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1-6장 안에 있는 네 개의 아람어 서신들에 점층법을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네 개의 아람어 서신들은 적대자들의 건축 반대로부터 찬성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의 전환점에 배치되어 귀환자들이 어떻게 적대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제2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1-6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아람어 서신들은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제2성전의 완성이라는 귀환의 역사에서 귀환자들과 적대자들 사이의 갈등의 절정을 그리는 동시에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저자는 에스라서 1-6장에 세 번 등장하는 고레스 칙령이 유대인 포로 귀환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1장의 고레스 칙령은 성전건축 이야기를 시작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했고, 5장의 고레스 칙령은 건축자들 자신의 정당성 주장의 근거가 되었으며, 6장의 고레스 칙령은 다리우스 왕의 건축 허락을 이끌어내는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